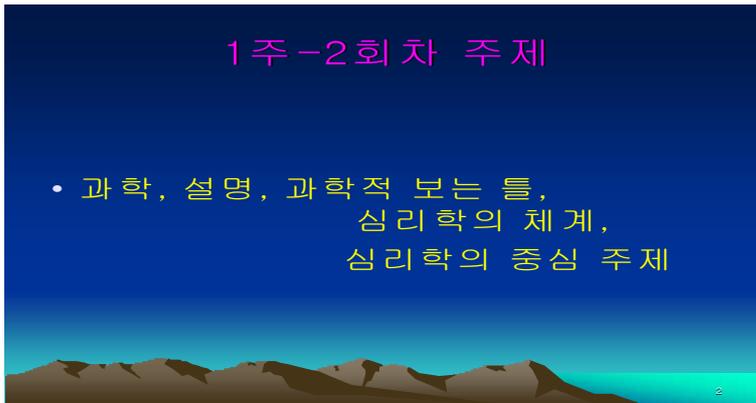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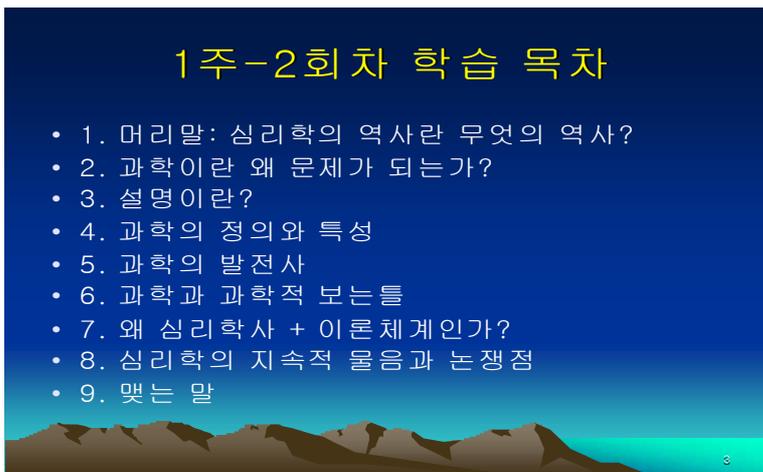


Lecture Notes File: History of Psychology/ (text in Korean)/ by Jung-Mo Lee(2012)  
#1-2: Introduction: Science, Explanation, Scientific Paradigm, Systems of Psych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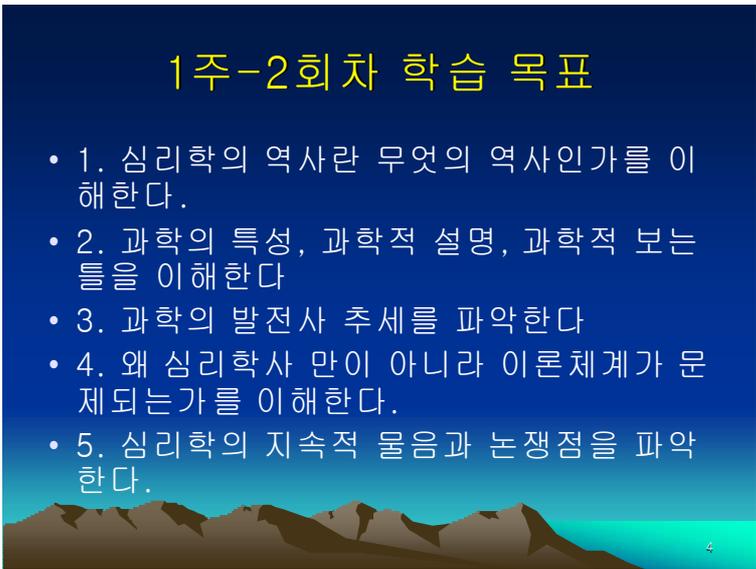
1-2강 file no.2

이어서 1주 2회 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단순히 [심리학사] 강의가 아니라 [심리학사 및 이론체계] 강의이기에 과학의 기초 관련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따라서 1주 2회 차의 주제는 과학, 설명, 과학적 방법들, 심리학의 체계, 심리학의 중심 주제 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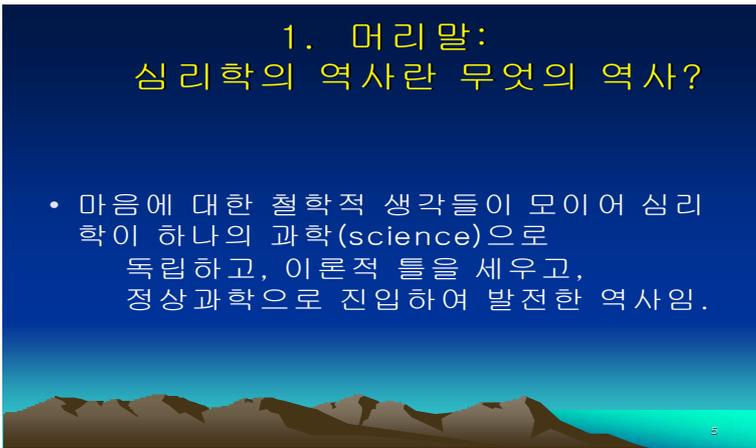
1-2강 file no.3

1주 2회 차의 학습 목차를 보면, 심리학의 역사란 무엇의 역사인가를 짚막하게 얘기하고 심리학사를 얘기할 때 왜 과학이 문제가 되는가? 그 다음에 과학에서 설명이란 무엇인가? 과학의 정의와 특성, 과학의 발전에서 과학과 과학적 보는 틀의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왜 심리학사와 이론체계를 거론해야 하는가의 내용을 다루고 이어서 심리학의 지속적 물음과 논쟁점을 다루고 첫 주의 맺는말을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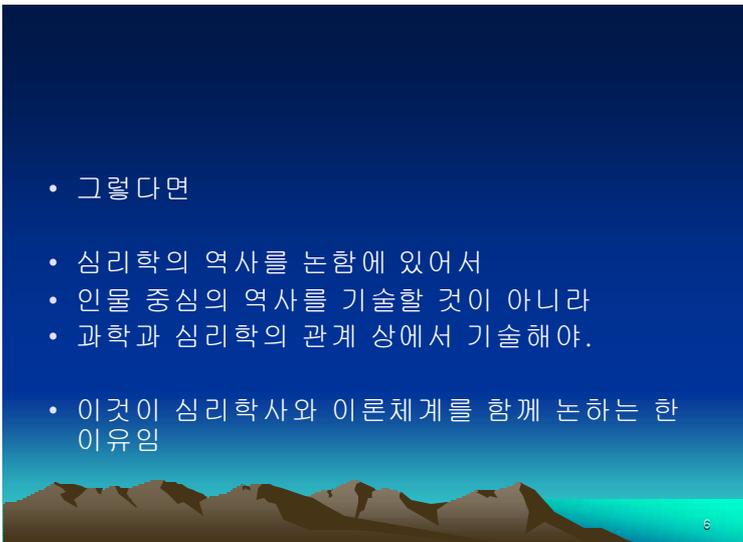
1-2강 file no.4

1주 2회 차 학습 목표를 5개로 이야기 한다면, 심리학의 역사란 무엇의 역사인가를 이해하고, 과학의 특성, 과학적 설명, 과학적 보는 틀을 이해하고, 과학의 발전 역사 추세를 파악하고, 왜 과학적 심리학에서는 심리학사만이 아니라 이론체계가 문제되어지는 가를 이해하고 심리학의 지속적 물음과 논쟁점을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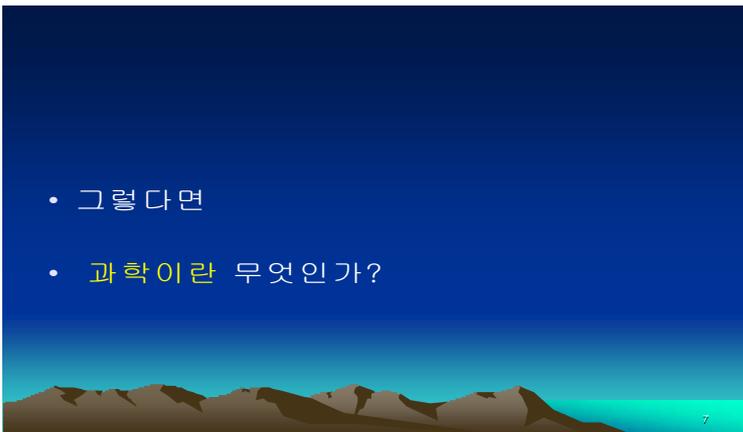
1-2강 file no.5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심리학사 강의의 머리말로, 심리학의 역사는 무엇의 역사인가? 라는 물음을 제시하는데, 마음에 대한 철학적 생각들이 모여서 마음에 대한 탐구인 심리학이 하나의 과학으로 독립하고 이론적 틀을 세우고 정상과학으로 진입해서 발전하여 온 역사가 심리학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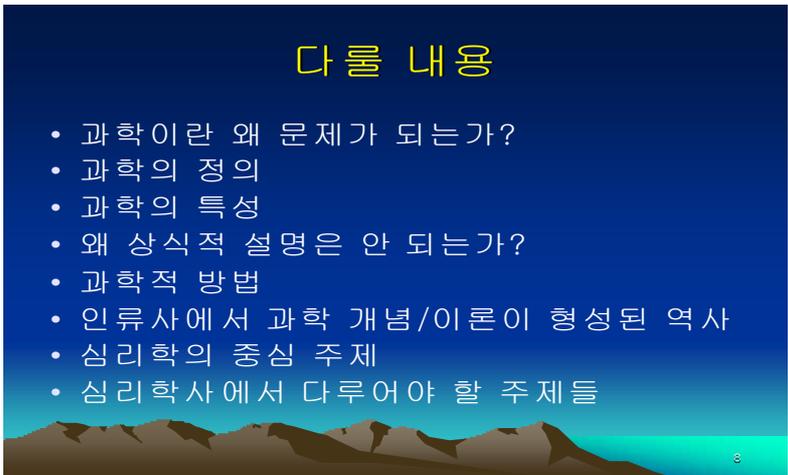
1-2강 file no.6

그렇다면 심리학의 역사를 논함에 있어서 사람 중심의, 인물 중심의 나열식의 역사를 기술할 것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것, 그리고 과학과 심리학의 연관 관계 등의 측면에서 심리학사를 기술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심리학사 뿐만이 아니라 이론체계를 함께 논하여야 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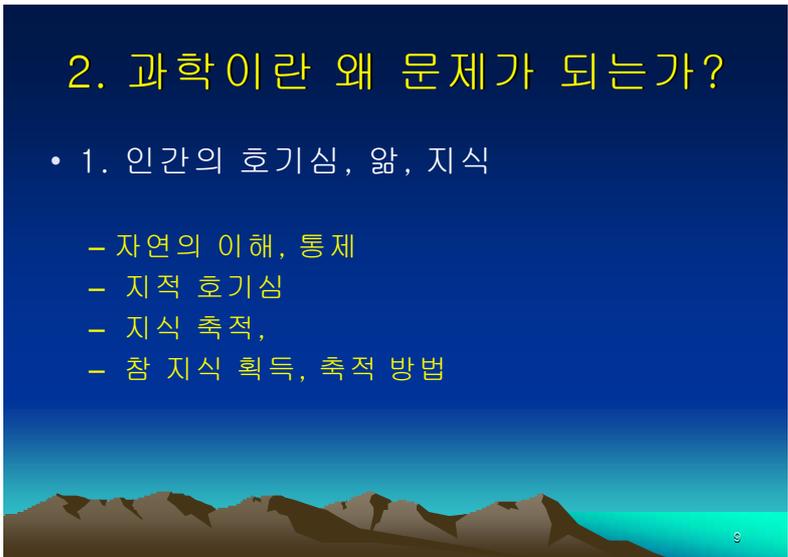
1-2강 file no.7

그렇다면 과학이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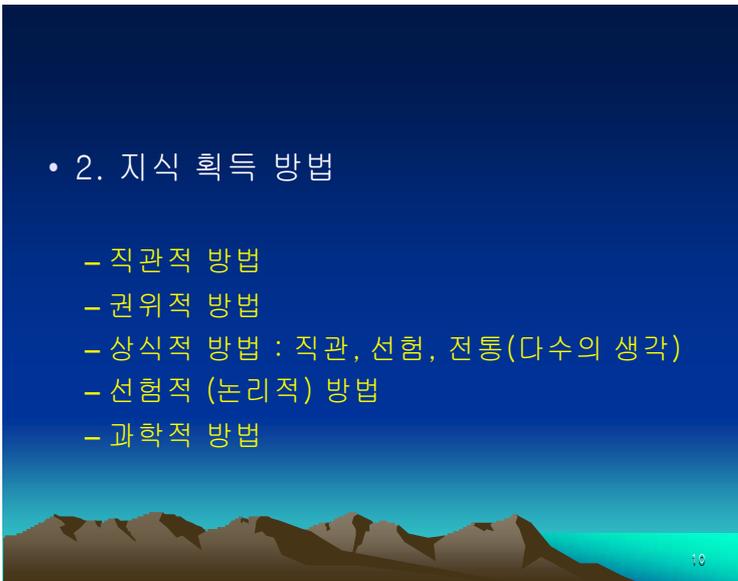
1-2장 file no.8

과학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다시 한 번 과학의 내용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기에서 언급될 내용들은 과학이란 왜 문제가 되는가? 과학의 정의, 과학의 특성, 왜 상식적 설명은 안 되는가, 과학적 방법, 인류사에서 과학 개념 이론이 형성된 역사, 심리학의 중심주제, 심리학사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들 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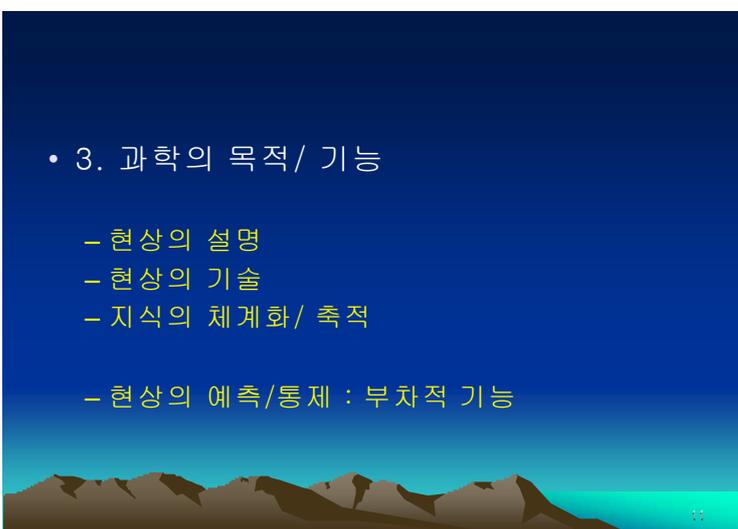
1-2장 file no.9

과학이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는 물음을 먼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이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첫 번째로 인간의 호기심, 앎, 지식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인간은 자연을 이해하고 통제하려고 하여왔고, 자연을 이해하려고 하는데에서 지적 호기심이 생겨났고, 이해하고 통제하는 그 과정에서 지식이 축적되었고, 그런데 그렇게 획득한 지식이 틀린 지식일 수가 있어서 참 지식, 틀리지 않고 정확한 지식을 측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객관적 지식 도출 방법들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2강 file no.10

그래서 지식 획득 방법이란 것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옛날의 원시시대의 사냥기술에 대한 지식에서부터 오늘날의 굉장히 복잡한 물리학의 지식까지에 걸쳐, 지식을 획득하는 여러 유형의 방법을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옛날의 직관적 방법, 그냥 혼자 직관적으로 생각해서 이렇다 저렇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권위적 방법,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왕 또는 부족의 족장 같은 사람들이 그것은 이래서 이렇다 라고 설명하는 것을 그대로 참이라고 믿는 방법이 권위적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식적 방법은 실제로 경험을 안 해 본채로 직관적으로 일반 다수의 사람들이 맞다 라고 생각해오던 전통에 의해서 그 게 참이다 라고 믿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언적, 논리적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경험을 안 해 보고 일부의 사람들이 앉아서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추정하여 아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마지막에 있는 과학적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학적 방법은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2강 file no.11

다음은 과학의 목적과 기능을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과학의 목적은 무엇인가? 과학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해서, 과학은 현상을 설명하거나(explain) 기술하고(describe) 현상에 대한 지식을 체계화하고 축적하고 그걸 통해서 현상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상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은 과학이라기보다는 테크놀로지(기술; technology)에 속할 수가 있겠고 이는 과학의 부차적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 설명이란?**

- ‘왜?’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다.
- ‘왜 한 현상은 그러한가, 왜 현재의 상태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왜 그러한 것이 일어났을까?’ 또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은 왜 일어나는가?’ 등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다.
- 현상의 부분과 부분, 그러한 현상과 그러하지 않은 현상, 그러한 현상과 다른 어떤 속성, 조건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대답이 된다.
- 기술(description)과는 다름.

1-2강 file no.12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이라는 주제가 나오는데, 같은 물리 현상도 아인슈타인이 설명한 것과 뉴턴이 설명한 것이 서로 다릅니다.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에서는 과학적 설명 (scientific explanation)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현상을 설명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묻는다면, 먼저 설명의 정의는 왜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한 현상은 그러한가? 왜 현상은 현재의 상태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왜 그런 것이 일어났을까? 또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은 왜 따라 일어날까 하는 등의 물음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연현상은, 그것이 인간 심리현상일 수도 있고, 물리현상, 기후현상일 수도 있는데, 그런 현상의 부분과 부분, 그리고 그런 현상과 그러하지 않은 현상, 그런 현상과 다른 어떤 속성이나 조건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대답이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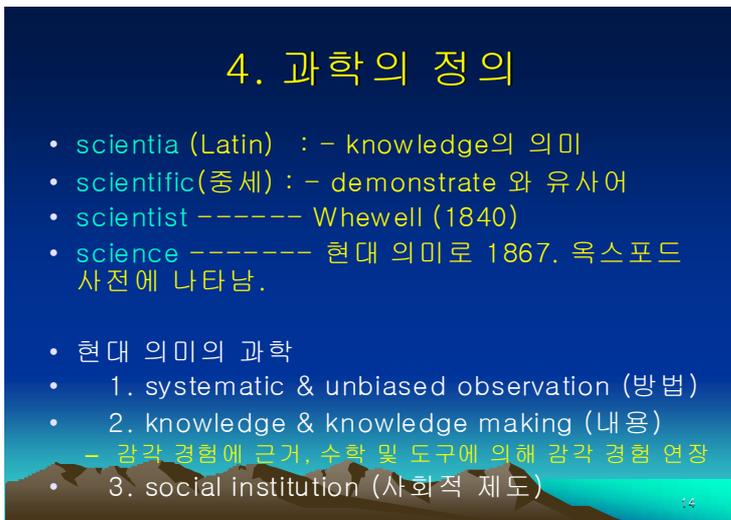
자동차를 많이 굴려서 가스가 배출되면 기후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선행사건과 후행사건 사이의 관계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과학이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술과는 다른 것입니다. 기술(description)은 단순히 현상이 어떠한지 다들 얘기하지 왜(Why) 그러한가를 설명을 못 해주는데, 과학적 설명(explanation)은 왜?에 대한 설명을 줍니다. 현상의 인과관계를 밝혀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학	상식
1. 체계적	비체계적
2. 타당성의 완벽 지향	불완전성
3. 갈등(모순)적 판단/이론 불허용	허용
4. 언어의 결정성	비결정성
5. 가치 중립적	가치 의존적
6. 통제된 관찰, 객관성	통제, 객관성 결여

1-2강 file no.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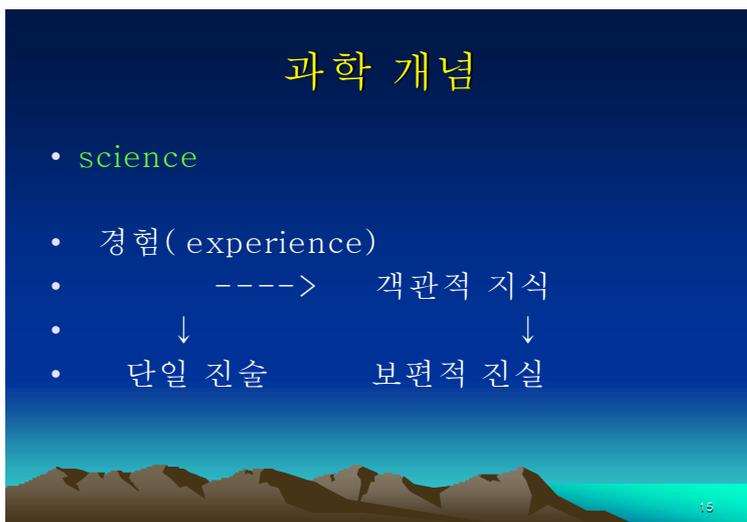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그러면 왜 꼭 과학을 해야 되느냐, 상식적 설명으로는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과 상식의 차이를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내용을 보시면 상식적 설명만 가지고는 안 된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과학과 상식을 비교해보면, 과학은 첫째로 체계적인데 비하여 상식은 비체계적이고, 과학은 타당성의 완벽을 지향해서 설명을 얻는데 상식은 타당성이 없는 불완전한 설명을 제시합니다. 셋째로 과학에서는 갈등적 판단과 이론을 허용하지 않는데, 상식에서는 서로 갈등이 되거나 모순이 되어도 그것을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귀신이 있다 없다 그런 것들이 다 허용된다는지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언어의 결정성이 과학의 특징이라면 상식에서는 사용되는 언어는 비결정적입니다. 과학에서는 언어로 표현할 때 그 언어가 무엇을 표현하는지가 명료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식에서는 애매한 말을 사용하여 표현하여도 통용되는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로 과학에서는 가치중립적인데 상식은 가치의존적이고, 여섯째로 과학에서는 엄밀한 통제된 관찰을 통해서(주로 실험을 통해서이지요) 객관성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데 반하여 상식은 통제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장 file no.14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과학(Science)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용어의 발달 역사를 살펴보자면, 과거의 라틴어에서는 과학의 의미가 지식(knowledge)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고, 이후 중세에는 예증이나 예시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이후 발전되어서 현대 의미의 과학 개념은 체계적이고 편향됨이 없는 관찰의(systematic and unbiased observation) 의미가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 의미는 축적된 지식과 그런 지식을 만드는 과정(knowledge and knowledge making), 즉 내용에 의미를 지니고 있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제도(social institution)의 의미, 그러니까 과학계라든지 학교 등과 같은 사회적 제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학은 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장 file no.15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다시 이야기 되는데, 여기서 보면 과학에는 기본 4 요소가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관찰될 때에야 비로소 무엇이 어떠어떠하다는 단일적인 진술이 나올 수가 있는데, 과학적 법칙이 되려면 그 것이 보편적 진실

이 되어야하고, 보편적 진실이 되려면 객관적 지식이 되어야 하고, 그 객관적 지식은 단일한 사례보다 여러 사례를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일반화하여 얻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정적(靜的) 정의:  
자연 현상을 만족스럽게 해석하며 자연현상 내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설명하는) 검증된 사실들과 개념들의 집적체 (조직화된 지식 내용)
- 역동적 정의:  
그러한 사실들과 원리를 발견하게 하는 수단과, 그러한 수단을 문제해결을 위해 적용하는 것 (과학적 방법과 과학적 행위)

1-2강 file no.16

과학을 정적으로(static) 생각하자면, 과학이란 자연 현상을 만족스럽게 해석하며 자연 현상 내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검증된 사실과 개념들의 집적체, 즉 객관화된 과학적 지식이죠. 정적인 면을 넘어서 역동적(dynamic) 측면을 살펴보면, 그런 사실들 수단을 문제해결을 얻기 위해 적용하는 그런 과학적 행위, 이런 것이 과학의 다른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과학의 핵심 특성 : 과학적 방법

- 지식획득의 체계성, 객관성; 설명의 객관성
- 1. 경험적, - 관찰 가능해야 함 (반복 가능성)
- 2. 공중적 - 사적 경험이 아니라 타인도 경험 가능해야 함 (객관성)
- 3. 결정적 - 사건과 사건(현상과 현상) 사이의 관계는 인과적이고, 기계적 결정적이어야 함 (deterministic)  
- 인과율, 기계적 결정론
- 4. 질서적 - 관찰되는 현상은 규칙적, 질서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함 (uniformity)

1-2강 file no.17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과학의 핵심 특성을 과학적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과학적 방법이나 하면, 지식 획득이 체계적이고 현상에 대한 설명이 객관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것이 과학적 방법의 특성입니다.

지식획득이 체계적이고 객관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이냐면, 네 가지를 이야

기 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경험적이어야 합니다. 관찰가능 해야 된다는 것이며 그 관찰 결과가 반복 획득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죠. 머릿속에서 상상적으로 생각해낸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지요. 둘째는 공중적이어야 합니다. 과학적 사실을 얻기 위해서는 사적인 주관적 경험이 아니라 타인도 같은 경험이 가능해야 하고 그 것을 객관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결정적(deterministic)이어야 합니다. 사건과 사건사이의 관계는 인과적이고 기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즉 기계적 결정론적 인과율이 현상에 적용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질서적이어야 합니다. 관찰되는 현상이 규칙적이고 질서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특성이 과학적 방법의 기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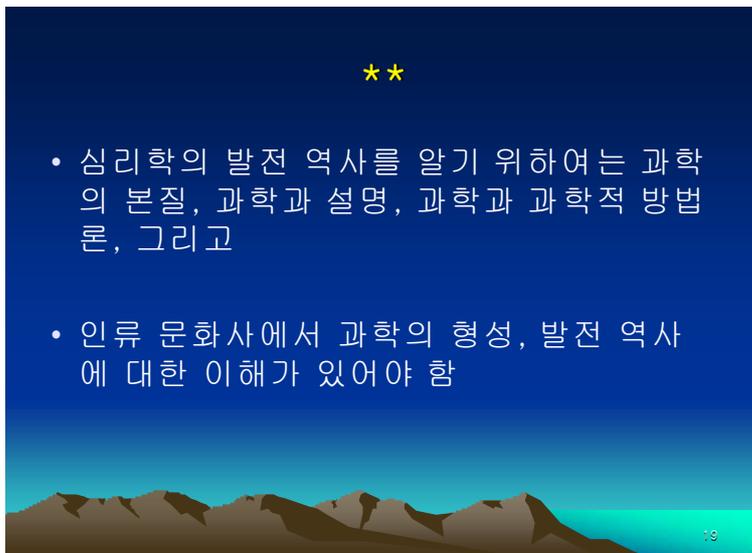
**경험적? 객관적? => 어떻게?**

- 1. 통제된 관찰 controlled observation
  - 현상 발생의 통제 - 발생 원인의 최소화
  - 관찰 측정의 통제
  - 결과 분석의 통제
- 2. 논리적으로 정당한 설명
  - logically sound explanation
- 3. 이를 통해 객관성 확보
  - objectivity

1-2강 file no.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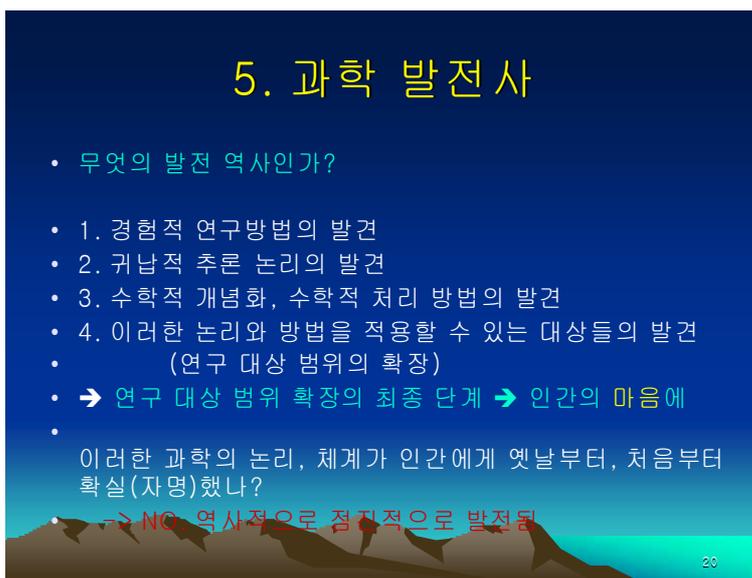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과학의 방법에 대해서 계속 논하는데, 과학이 경험적이다 객관적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얻느냐 하면, 첫째로 통제된 방법(control observation)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세 종류의 통제가 과학적 방법의 기본인데, 즉 현상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들을 최소화 하는 그런 통제를 하고, 관찰 측정을 정확하게 하는 통제를 하고, 결과와 분석을 정확하게 타당하게 하는 통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논리적으로 정당하고 타당한(sound) 설명이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그 것을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학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심리학사를 들으러 왔는데 웬 과학 얘기, 추상적인 그런 얘기냐고 조금 당혹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사는 심리학이 과학으로써 출발하여 발전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물으려면 과학의 본질과 그 특성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1-2강 file no.19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심리학의 발전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과학이라든지 과학과 설명, 과학과 과학적 방법론, 그리고 인류 문화사에서 과학이 형성되어온, 발전되어온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심리학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 할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발전사를 알아야 심리학의 발전사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학의 발전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하는 물음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를 다음에서 다루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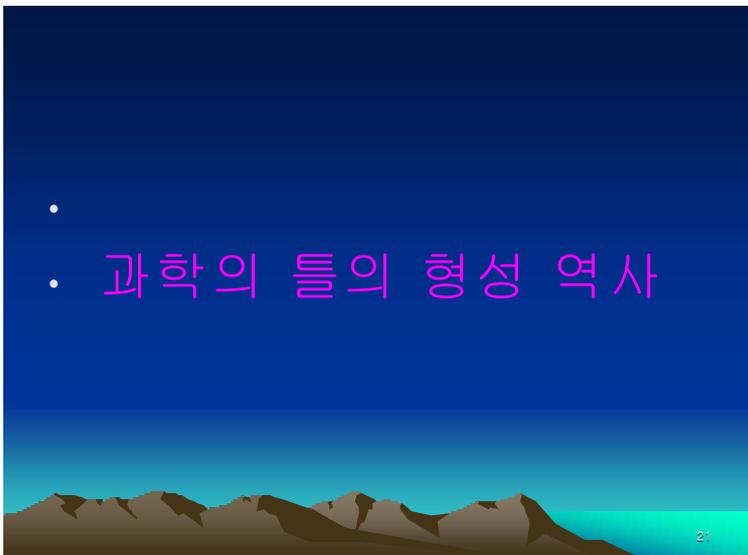
1-2강 file no.20

과학은 과연 무엇이 발전 역사인가 라는 물음을 던질 때에 몇 가지를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 역사는 우선은 경험적 연구 방법의 발견의 역사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처음부터 과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류 문화가 발전 하면서, 인류의 생각이 발전하면서 과학이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발전 과정을 보면, 첫째로 경험적 연구 방법

의 발견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했고, 그 다음으로 논리 측면에서 보면 귀납적 추론 논리가 발견되어서 과학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발전에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수학적 개념화, 수로 표현해서 수학적 처리하는 방법을 인류가 발견하고 그것을 과학에 연결하는 것이 과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넷째로 이런 논리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의 발견, 그러니까 과학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들의 발견이 과학의 발전을 계속 가능하게 해왔는데, 최초는 인간과 동떨어진 천체 같은 물질 중심으로 -[천문학]-, 그 다음에는 자연에 있는 다른 물질 중심으로 -[물리학]-, 과학이 발전되어서 천체관측, 물리학 등이 과학의 핵심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이 연구 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조금씩 확장해서 [생물학] 등이 나오고 [기상학]도 나오고, 결국은 인간의 마음에까지 연구 대상이 넓혀져 갔고 [심리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학의 논리, 체계가 과연 인간에게 옛날부터 처음부터 확실히 인간이 알고 있었느냐라는 물음을 던지면, 아니다(no)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처음부터 초기 역사부터 과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부터 인류의 문화적 발전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오늘날의 과학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강 file no.21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과학의 틀의 형성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뉴턴의 과학 틀, 아인슈타인의 과학 틀, 다윈의 과학 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과학을 접근 하는데 있어서 과학 틀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과학의 틀의 형성 역사를 다음에 제시합니다.

## <희랍 이전 시대>

- 자연 현상의 우연적 관찰, 미신적 설명
- (신, 주술, 미지의 힘에 의한 설명 중심)
- 인과율의 개념이 없음, 산만한 지식
- 인간 심리현상을 객관화하여 대상으로 다루지 못함.

1-2강 file no.22

인류 문화사에서 과학이 형성되고 발전되어온 역사를 짚막하게 훑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빌헬름 분트에 이르러 과학으로부터 심리학이 독립하는 과정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속 짚막하게 이야기하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 희랍 이전 시대에 과학이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대체적으로 보아서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개념과 같은 과학 체계는 없었고,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하여 그냥 신이나 주술이나 미지의 힘에 의한 설명이 있었고 인과율의 개념도 없었고 산만한 지식이 있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겠습니다.

## <희랍시대>

- 지식의 체계화, 인과율의 개념 대두  
- (그러나 목적적 인과성 강조: 신의 의지)
- 체계적 관찰이 시작  
- 그러나 예증 (demonstration)이지,  
- 실험법은 발전 못함
- Aristotle 이전 - 산발적, 우연적 관찰,
- 산발적 개념과 이론 제시

1-2강 file no.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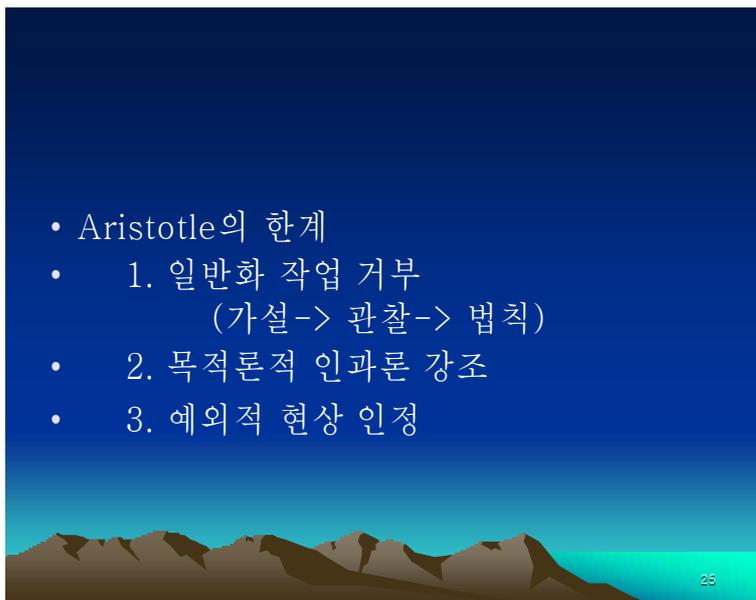
이 시대에는 주로 신의 의지에 의해서 현상을 설명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희랍시대에 지식의 체계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인과율의 개념도 대두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 하겠지만, 하여간 체계적 관찰이라는 과학적 방법이 이 시대에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과학의 기본 방법인 실

험법은 발전을 못하고 이 당시는 단지 우연적 관찰이나 산발적 관찰 등이 중심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2강 file no.24

희랍 시대에 이미 심리학의 여러 주제들을 논한 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학의 발전과 관련되는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인과율 개념과 인과율의 유형을 제기하고 삼단 추론법을 정립하는 등으로 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1-2강 file no.25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한계가 있는데, 과학적 방법의 핵심 절차인 일반화를 체계화하지 않고, 현상의 원인으로 신이 개입하는 목적론적 인과론을 인정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여 현상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상당히 발전하였습니다. 그는 식물들을 채집하고 그 식물들을 관찰되어진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범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의 방법은 세심하고 질서정연하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관찰 및 분류 방법은 후의 과학적 방법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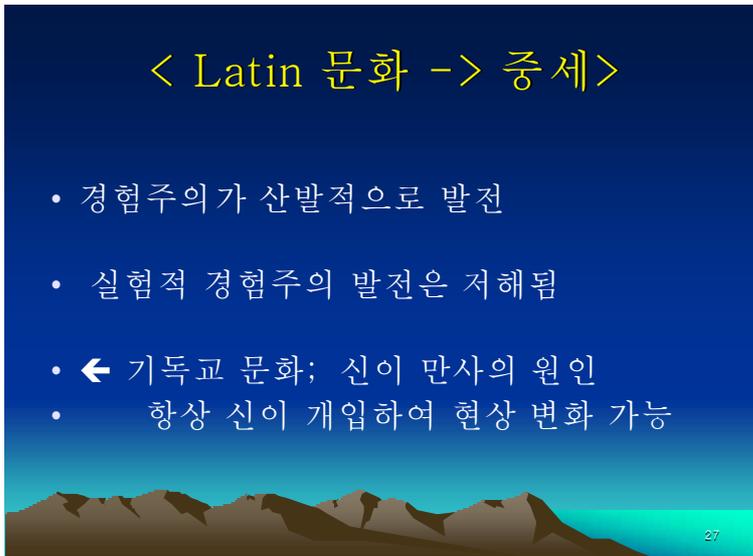
또 그는 과학철학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자연 대상이나 현상을 분류하는 방법과 과학적 설명 이론의 기초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는 자연 현상의 변화의 4개 원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원인은 형태적 원인이었고 (플라톤의 입장을 따라), 둘째 원인은 물질이었습니다(원자주의자들의 입장을 따라). 그의 세번째 원인은 'efficient cause'라는 것으로 조각에서 조각가, 도구, 작용 과정들이 이에 속하였고, 네번째 원인으로 종국적 원인(the final cause - the goal or purpose of the process)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은 그의 제2 및 제3의 원인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 < 그 이후 희랍시대 >

- - 경험적 관찰, 해부  
(-> 실험에 가까운 개념)
- - 임상적 (관찰, 상관) 접근
- Galen - 실험 (적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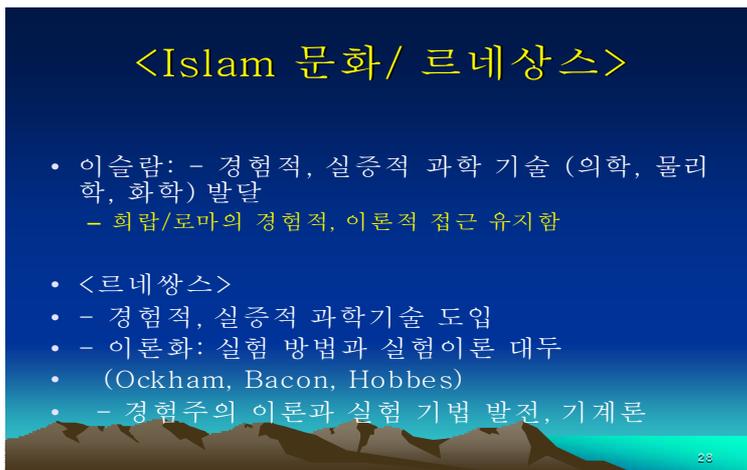
1-2장 file no.26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희랍시대, 로마시대에서 과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라는 것을 살펴 보면, 점차 실험이라는 방법이 인류 문화에 도입되어서 단순히 상관적인, 우연적 관찰 뿐만 아니라 인위적 실험적 조건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강 file no.27

서구의 라틴 문화와 중세 시기에서는 현대 과학의 핵심 요소인 경험주의가 그 당시에 도 발전되기는 했지만, 산발적으로 진행되었고, 기독교 문화가 서구를 지배하여 모든 자연 현상이 신의 의지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입장이 널리 퍼지면서, 과학적 법칙을 따질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과학적 발전이 지체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 암흑기였지요.



1-2강 file no.28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이러한 서구의 기독교적 암흑시대 상황을 보완해준 것이 바로 이슬람 문화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슬람이 과학이나 테크놀러지 면에서 뒤졌지만, 중세 이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문명화한 국가가 중국과 이슬람국가들이었습니다. 서구는 미개 국가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희랍과 라틴 문화에서 발전된 경험주의 문화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슬람 문화권에서 계승해서 발전시켰고 유럽 권에서 계승해서 발전시키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슬람 문화에 의해서 유지된 희랍의 지식, 희랍의 방법

들이 르네상스를 통해서 유럽에 재도입되어 유럽에서 현대적 과학이 발전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유럽의 경험론 철학 등의 발전이 실험, 과학적 방법 등을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Galileo >

- 1. 현대 의미의 실험을 창시:  
실증 -> 설명
- experimentation의 의미는 어원적으로 cimento (노고: ordeals)
- 2. 자연에 대한 기계론적 관점
- 3. 기술(description)의 중요성 강조
- 4. 과학 => 법칙 발견적
- 5. 추론 논리 발전

1-2강 file no.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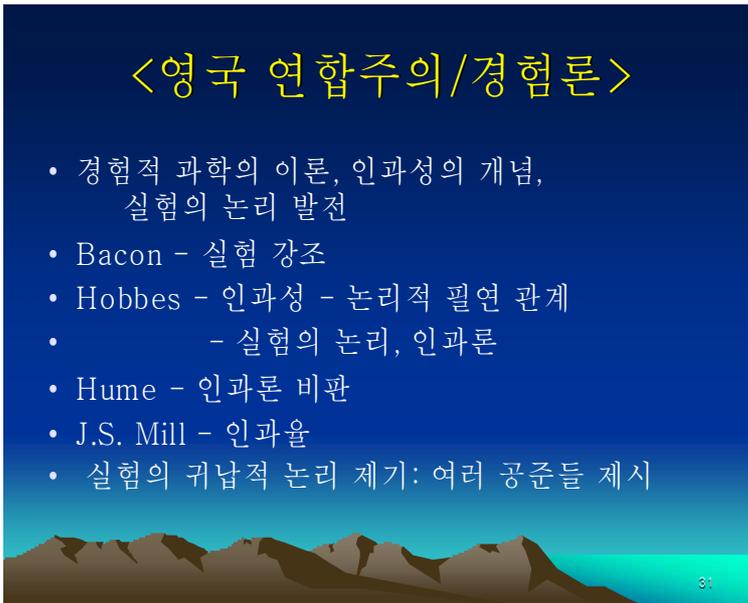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갈릴레오가 거론되는데, 갈릴레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실험(Experiment)을 강조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회랍 시대에는 실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 관찰이 중요했는데, 갈릴레오와 뉴턴 시대로 넘어오면서 실험적 접근이 강조되고 거기에 더하여 실험적 방법에 대한 이론이 발전되고, 과학이라는 것, 과학적 방법, 과학적 추론의 개념이 발전되었습니다.

### < Newton >

- : 영국의 경험주의 부상, 정착
- 1. 과학적 결정론(기계적 결정론)
- - 질서있는 법칙에 의해
- 선행사건 -> 후행사건 (기계적 인과)
- 2. 모든 물질적 사건은 수학적 표현 가능한 규칙 체계 내에 맞추어 설명
- 3. 실험법 이론의 발전
- 4. 가설-검증 이론의 발전
- 5. 심리현상도 결정론에 의해 지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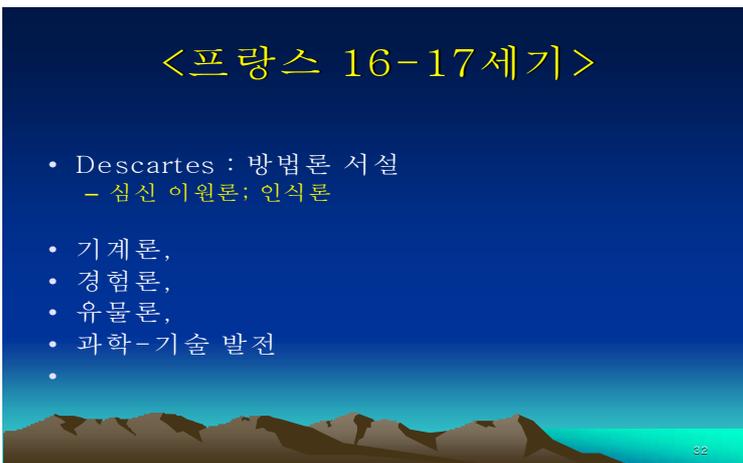
1-2강 file no.30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영국의 뉴턴이 실험법뿐만 아니라, 기계적 결정론 (모든 자연 현상은 신의 개입이 아닌 기계적 결정론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개념을 발전시켰고 실험법도 발전시켰고, 가설 검증도 연구해서 발전시켰습니다. 뒤에 가서 중세 이후의 서구에서 과학의 형성 역사와 관련하여 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1-2장 file no.31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영국 연합주의 경험론, 영국의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험주의적인, 경험론적인 그런 입장들이 제시 되서 자연 현상을 인과성의 개념을 통해서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했고, 인과성의 개념을 논리적으로 세련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1-2장 file no.32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프랑스의 16, 17세기의 과학적 사조의 흐름이 거론되는데, 16, 17세기의 프랑스에서는 경험론과 기계론, 유물론 등이 상당히 발달해서 그 것이 후대에

상당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당시의 과학과 기술의 중추국은 프랑스였다고 (지금의 미국처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17 -> 19세기

- 17-19세기의 철학자들 : 심리현상은 기계적 인과성이 적용될 수 없고, 수리화할 수 없으므로 심리학에 대한 과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 Kant
- 19세기 말: 심리 현상도 수량화하고, 기계적 결정론이 적용되고 객관화하여 관찰, 실험할 수 있음을 깨달음
- -> 심리학의 독립 : W. Wundt

1-2장 file no.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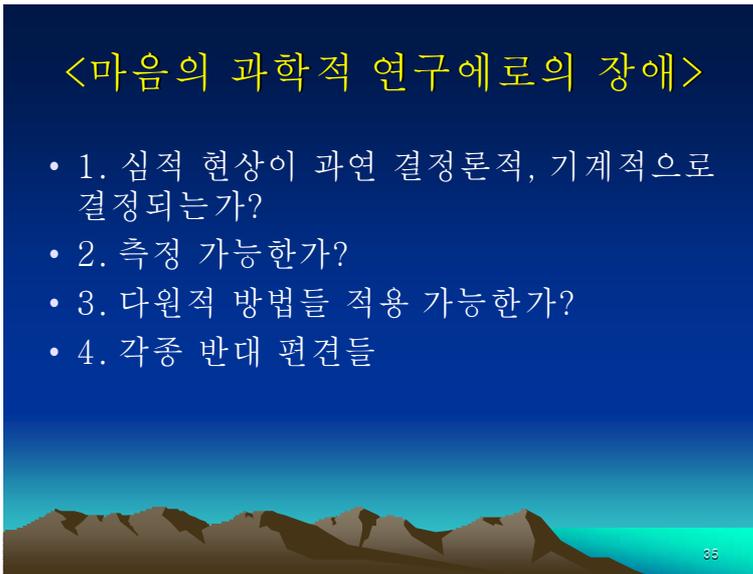
17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서는 심리현상은 기계적 인과성이 적용될 수 없고 수리화 할 수 없으므로 과학적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 이상하게 생각되겠지만 - 임마누엘 칸트가 그런 사람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과학적 탐구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연결 되서 심리 현상에 대한 탐구가 철학에서 분리되어 하나의 독립적인 과학인 심리학으로 출발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초기 작업의 큰 역할을 독일의 빌헬름 분트가 하였던 것입니다.

## <독일: 18-19세기>

- 생물학, 물리학, 생리학 발전
- -실험법 -> 생리현상에 적용
- - 측정법 -> 물리 현상에 적용
  - > 정신물리학(psychophysics)
- Wundt가 이것들을 종합하여
  - 실험생리심리학으로 과학적 심리학을 출발시킴

1-2강 file no.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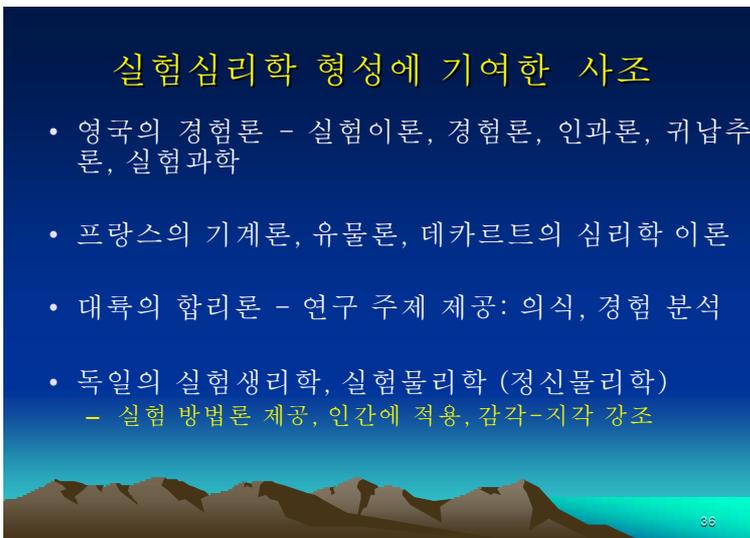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분트가 이런 식으로 독립을 하는데 배경 영향을 준 18,19세기의 서구, 특히 독일의 긍정적 주요 사조와 영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2강 file no.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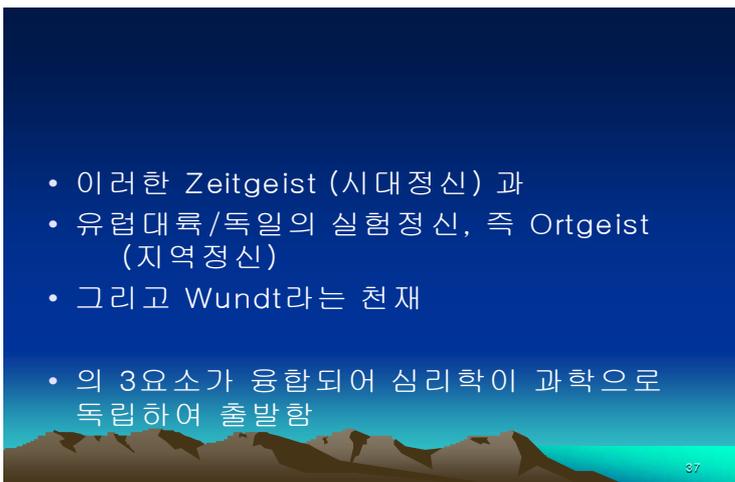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마음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하나의 과학적 분야로 독립하는데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생각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이나 화학과 같은 자연현상에 대한 연구가 과학으로써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 할 그 즈음에 심리학은 아직도 철학의 하위 분야로서 심리철학으로 남아있었는데 그런 심리학이 하나의 독립적인 학문으로 발전하지 못했던 장애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심리현상이 결정론적으로, 기계적으로 결정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느끼기도 했었고 과연 심리 현상이 측정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심리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 따라서 심리학의 독립과 발전이 지연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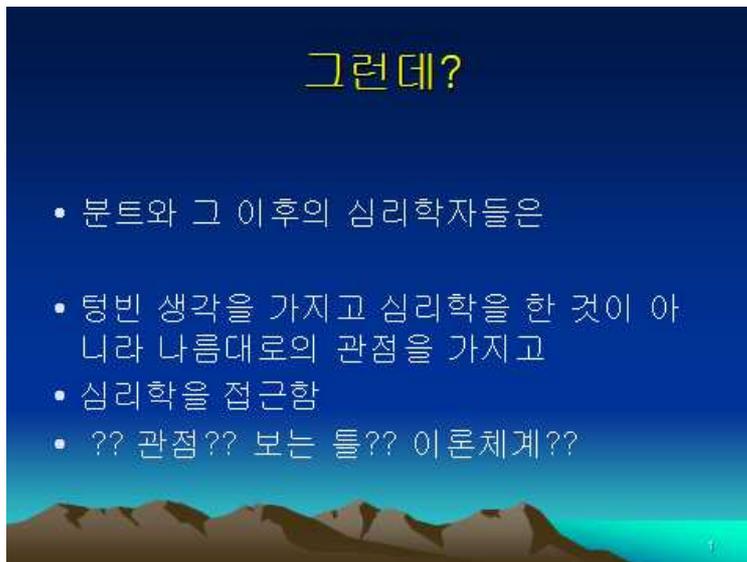
1-2강 file no.36

그러다가 영국이나 프랑스 등의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경험론, 기계론, 유물론, 데카르트의 마음 이론, 대륙의 합리론 등의 철학적 관점들과 독일 등에서 강하였던 실험생물학, 실험물리학 등의 접근들이 실험법을 강조하면서 심리학이 태어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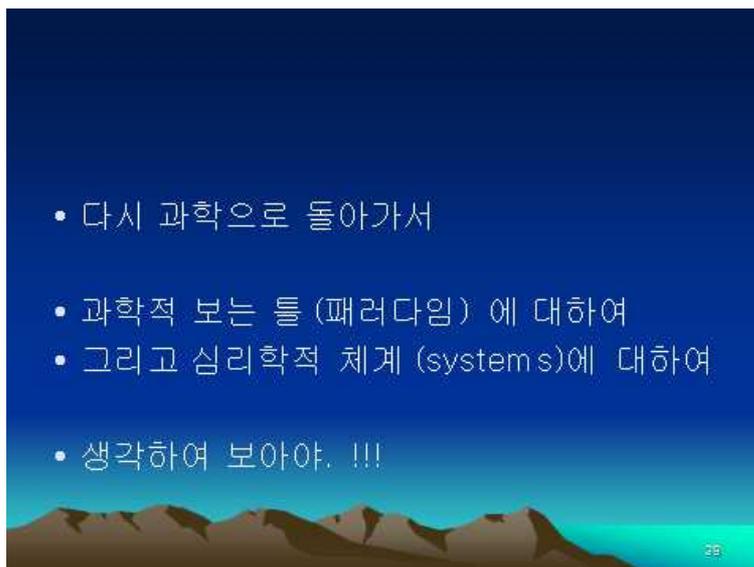
1-2강 file no.37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런 시대정신과 유럽 대륙이나 독일의 실험정신 즉, 지역정신 (장소정신; Ortgeist)이 연결되고 거기에 분트라는 천재적인 인물이 연결되어서 이러한 삼요소가 갖추어지고 연합되어서 심리학이 하나의 과학적 학문 분야로 독립해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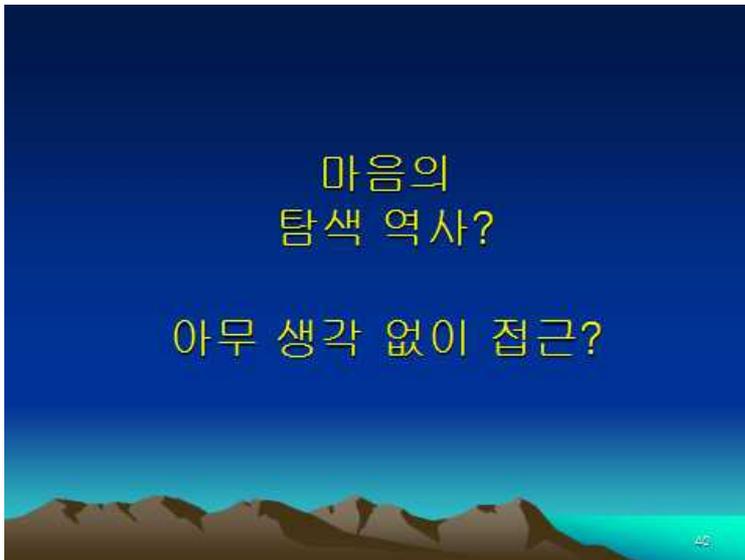
1-2강 file no.38

그런데 분트와 그 이후의 심리학자들은 그냥 텅 빈 생각을 가지고 심리현상을 이렇게 저렇게 연구한 것이 아니라 뉴턴이나 갈릴레오나 아인슈타인처럼 나름대로 특별한 관점, 즉 패러다임 또는 접근 틀을 가지고 심리현상을 접근해 갔던 것입니다.



1-2강 file no.39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되는 것처럼 과학적 패러다임, 과학적 보는 틀 그다음에 그 것과 심리학의 관계, 심리학의 이론 체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강 file no.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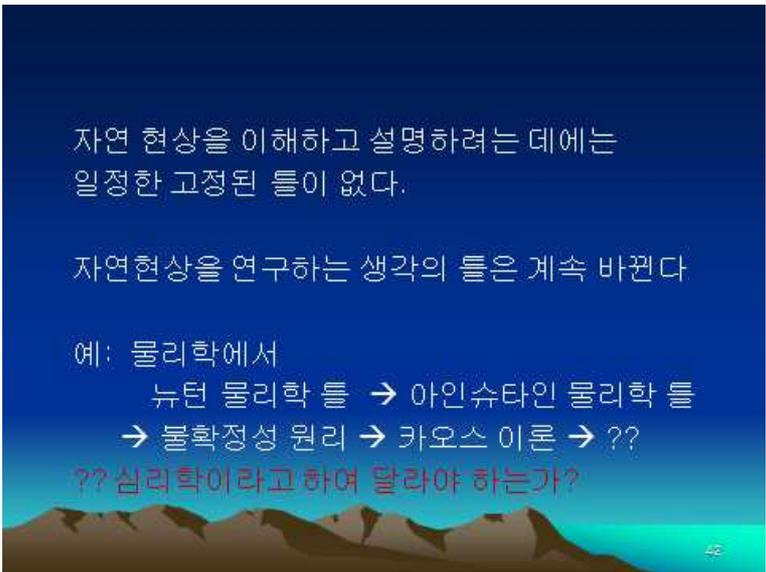
그런데 마음의 탐구 역사가 아무런 생각도, 틀도 없이 접근 가능한가 라는 물음을 던질 때에, 과학적 보는 틀, 심리학적 보는 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심리학적 보는 틀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바로 심리학사를 이론체계와 연결지어서 접근하는 의 문제의 이야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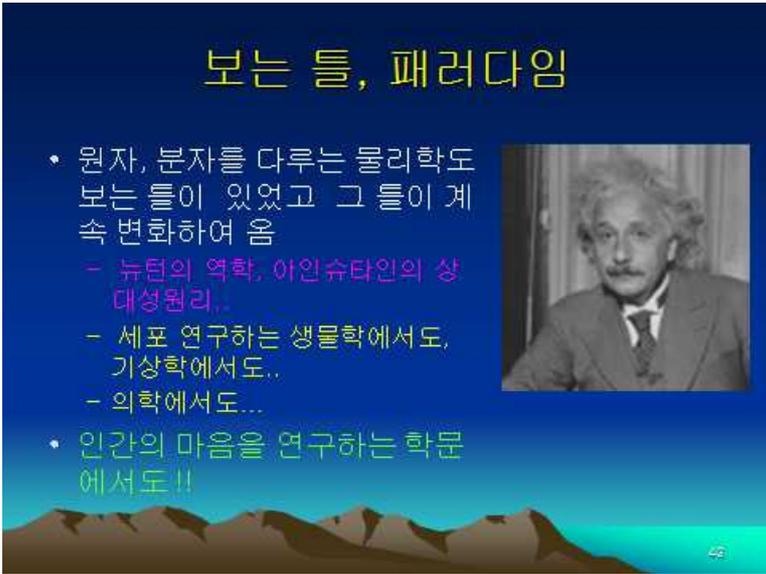
1-2강 file no.41

그래서 이제 과학적 보는 틀을 논하는데 이것은 비교적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강 file no.42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뉴턴 물리학의 틀이라든지 아인슈타인 물리학의 틀이라든지 불확정성의 원리라든지 카오스 이론 등 물리학에는 이런 여러 가지 틀이 있는데 심리학이라고 해서 달라야하는가 심리학에서도 틀이 있어야 하는가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1-2강 file no.43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의 틀이 있듯이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에서도 보는 틀 패러다임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보는 틀 : 왜 필요한가?

- 스파이 007이
- 러시아의 어떤 지방의 빌딩 복합단지의 기능을 탐색하려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 다음 슬라이드들에서 보시면 이 그림들은 인지과학의 강의에서 사용하는 그림들인데, 과학에서 틀의 문제를 영국의 스파이 요원 007이 러시아의 어느 지방의 빌딩 복합 단지 등을 탐색하여야 하는데, 그가 어떻게 접근 할 것인가? 하는 상황에 비유하여 한 번 생각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제약 조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직접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멀리서 관찰만 하지 직접 자신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심리현상을 관찰하기 위해 직접 뇌 뚜껑을 열고 들여다 볼 수 없듯이).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방화를 하거나, 길 차단을 하거나 그 건물 직원들의 출퇴근에 훼방을 놓거나 어떤 물품을 입력하는 등의 제한된 조치만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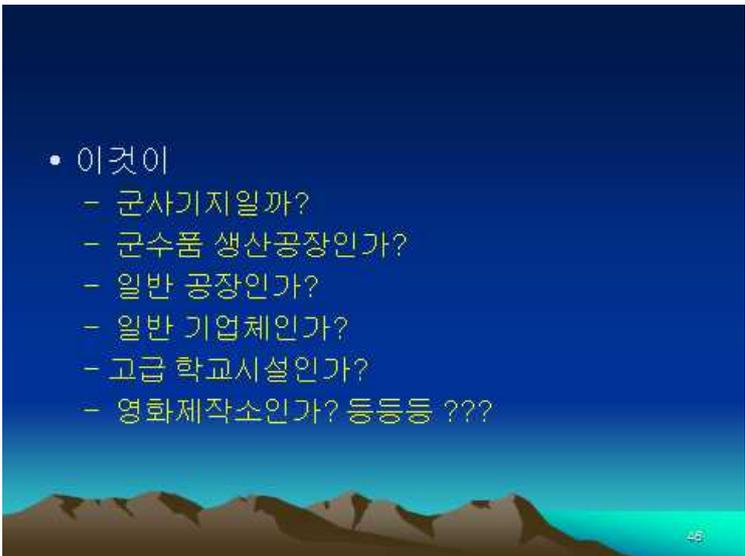


**제약조건:**

1. 그는 그 곳에 들어갈 수 없다.
2. 멀리서만 관찰 가능하지 가까이 접근 불가하다
3. 외부인을 매수하여 단체로 소란을 일으킬 수 있다.
  - 방화
  - 길 차단
  - 공장 직원들 출퇴근 훼방 등
  - 물품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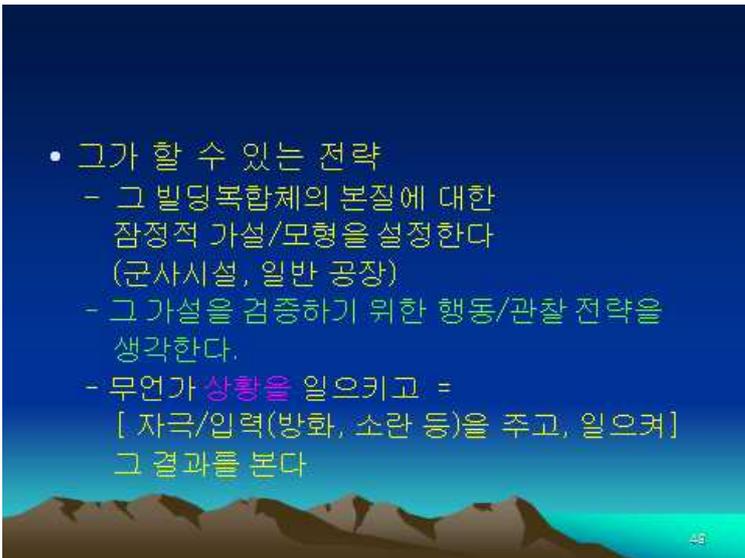
//

1-2강 file no.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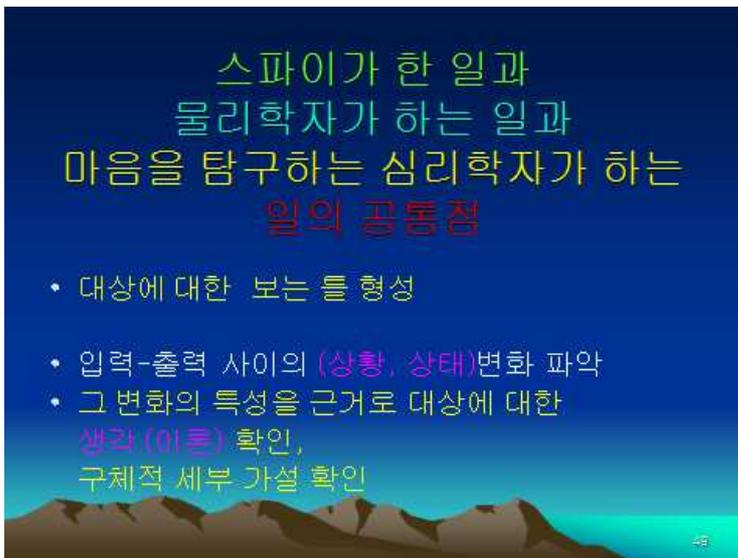


그런데 그는 그냥 쳐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빌딩이 무엇인가? 군사기지인가 공업체인가 학교시설인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 걸 접근해 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상에 대한 어떤 생각 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



그가 할 수 있는 전략은 그 빌딩의 본질에 대한 잠정적 가설 또는 모형(틀)(군사시설인가, 일반 공장인가)을 세우고 그 가설이 맞는가를 검증하여야 합니다. 그가 재주가 있으면 방화나 소란같은 일을 일으키고 그 빌딩과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1-2강 file no.49

그렇게 보면, 007 스파이가 한 일과 물리학자가 한 일과 마음을 탐구하는 심리학자가 하는 절차가 공통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파이나 물리학자나 심리학자나 공통점은 보는 틀을 가지고 대상 또는 현상에 접근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을 전개한다면 물리학에서와 마찬가지로 (뉴턴 역학 틀, 양자역학 틀) 인간의 마음을 무엇이라고 볼 것인가 하는 일정한 보는 틀을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50 생략. 대신 링크 주소 연결

[https://encrypted-tbn2.google.com/images?q=tbn:ANd9GcQ27ND4CSttbt99sqT-eFAE72C\\_RueCkUuXihgmwGq2ObwBLGG0](https://encrypted-tbn2.google.com/images?q=tbn:ANd9GcQ27ND4CSttbt99sqT-eFAE72C_RueCkUuXihgmwGq2ObwBLGG0)

1-2강 file no.50 생략

그 다음 슬라이드에(생략) 기요틴 그림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인간의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 당시에 프랑스의 한 의사가 그런 생각은 틀렸고 마음이 머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단두대, 즉 기요틴에서 사람의 머리가 잘라져서 머리와 몸이 분리가 되자마자, 머리의 귀에다 대고 ‘너는 사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몸과 머리 사이의 관계란 어떤 것인가,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물음을 가지고 기요틴 현장 사례를 근거로 자신의 물음에 대한 답을 탐구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머리와 분리된 몸은 ‘기쁘다’는 반응을 할 수 없었지요. 하여간 이 사례는 당시의 경험적, 실험적 사고를 하려는 이들의 극단적 본모기를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슬라이드 51은 기요틴의 스펙을(예를 들어 칼날이 떨어지는 속도는 초당 21피트; 칼날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멈춰지는 시간은 1/70 초) 제시한 슬라이드로 이는 생략합니다.

1-2장 file no.52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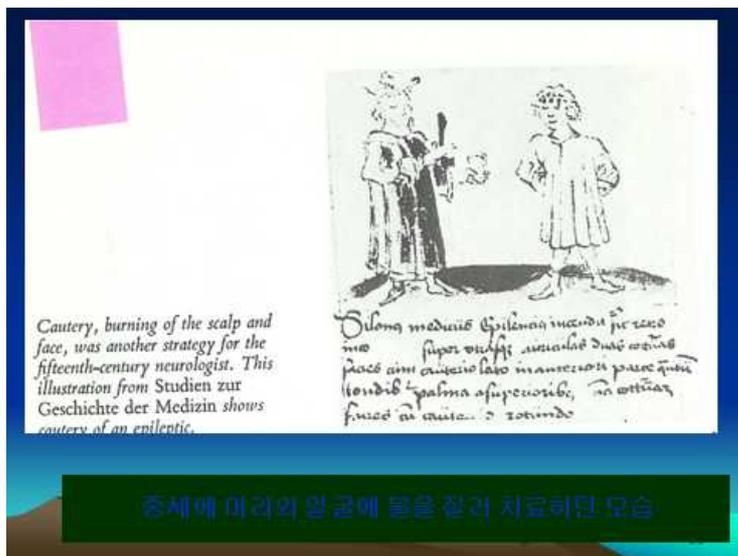
<http://en.wikipedia.org/wiki/Trepanning>

그다음 몇 개의 슬라이드 대신 위의 주소의 오른쪽 그림 5개를 보시면 중세 시대에 간질 병 등의 뇌의 질환, 또는 정신병 들린 사람을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머리에 구멍을 뚫는 'trepanning' 현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기도 했답니다. 그림 5개를 보면, 그런 trepanning 상황모습, 그 결과로 구멍이 머리 정중앙에 난 해골 모습, 그리고 뚫는 도구, 뚫는 의사 등의 그림이 있습니다. 옛날 당시에는 뇌의 (현대적 의미로) 신경적 질환이나 정신병적으로 이상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머리에 구멍을 뚫던 그런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 나름대로 뇌의 기능에 대한 어떤 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림 슬라이드 몇 개 생략)

1-2장 file no.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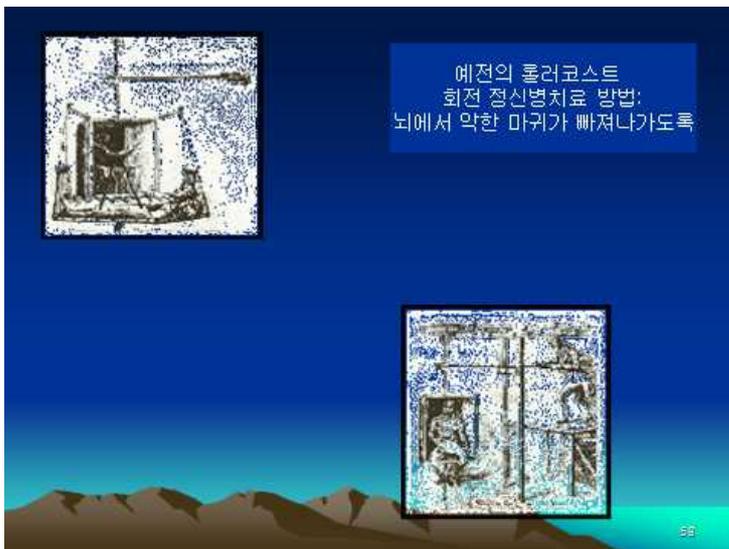
그 다음 슬라이드(생략하고 링크 연결)는 머리에 구멍을 뚫는 광경 그림인데 옛날 이집트 시대와, 마야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http://farm4.static.flickr.com/3579/3348599637\\_baa082766f.jpg](http://farm4.static.flickr.com/3579/3348599637_baa082766f.jpg)



1-2장 file no.57

다음 슬라이드는 중세에 정신병 환자를(중세 기독교 시대에는 일부 마귀 들린자의 치료도) 그들의 머리와 얼굴에 불을 질러서 치료하는 과정에 대한 옛 기록이고요 (초기의 cauter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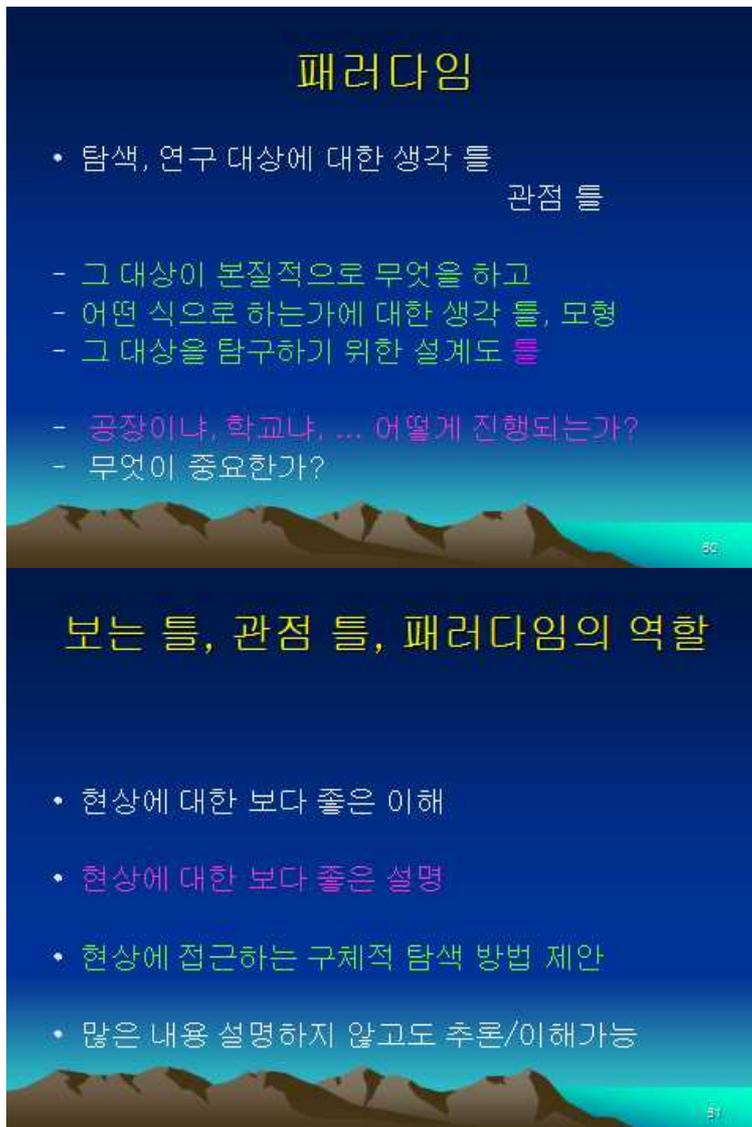
1-2장 file no.58

그 다음 슬라이드는 정신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굉장히 빨리 회전하는 통에다 정신병자를 넣으면 치료가 된다. 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절의 그림(기구)입니다. 이 모두가 인간의 마음에 대하여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보는 틀을 가지고 접근해갔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장 file no.59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의 학문이 과학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그 연구 대상 현상에 대한 보는 틀, 패러다임이 있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그 다음 두 슬라이드를 보시면 패러다임이란 어떤 한 분야의 연구 대상 현상에 대하여 그 대상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하고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한 접근 틀, 생각 틀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패러다임은 그 연구 대상을 탐구하기 위한 일종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패러다임의 역할은 현상에 접근하는 구체적 탐색 방법을 제안하며 많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도 그 현상의 특성을 추론, 이해 가능하게 하여 그 현상에 대한 보다 좋은 설명, 좋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틀입니다.

그리고 과학일반에 패러다임이 있듯이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에 있어서도 패러다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 보는 틀을 쉽게 기술하려면?

- 비유, 은유, **메타포**를 사용하여야..

- 탱크 같은 남자
- 여우 같은 여자
- 비행기같이 빠른 선
- 용광로 같은 날씨



1-2장 file no.62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는 틀을 비유적으로 쉽게 기술하는 예로 ‘탱크같은 남자’, ‘여우같은 여자’ 등의 메타포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틀을 가지고 어떤 현상을 얘기하려고 할 때 비유나 은유나 메타포를 사용하게 됩니다.

## 설명. 보는 틀

### 1. 과학적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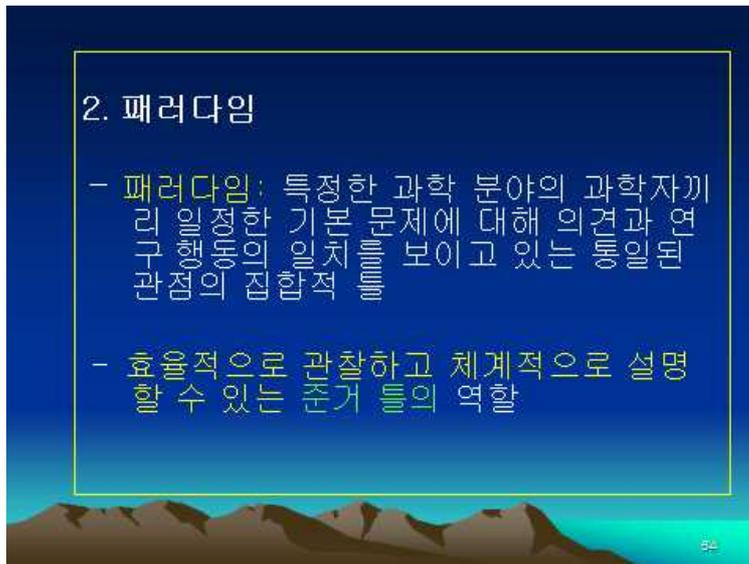
- 과학의 기본 목적: 현상의 설명
- **설명:**  
‘왜’ 라는 물음의 답  
문제의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것과,  
결과 현상간의 관계성을 밝히는 것



1-2장 file no.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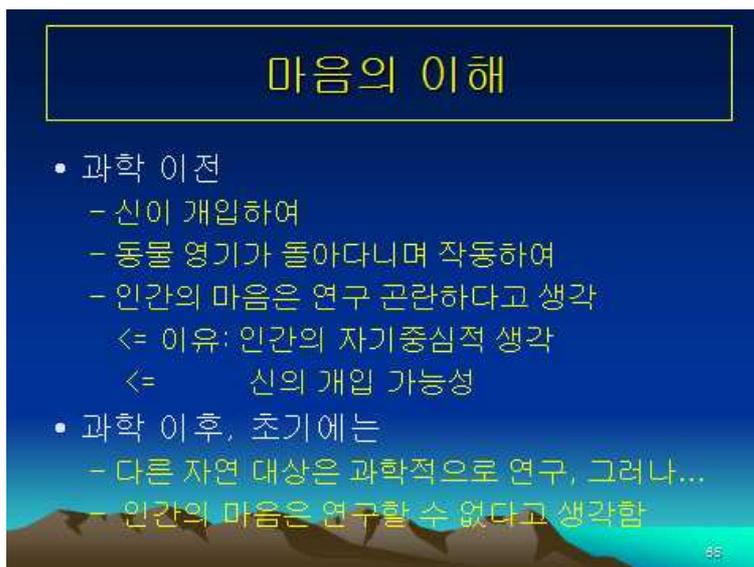
은유적이건 아니건 간에 이러한 설명, 보는 틀이 있어야 과학적 설명을 잘 할 수 있겠고 왜라는 물음에 대한 적절한 답을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에서도 어떤 보는 틀, 즉 패러다임을 갖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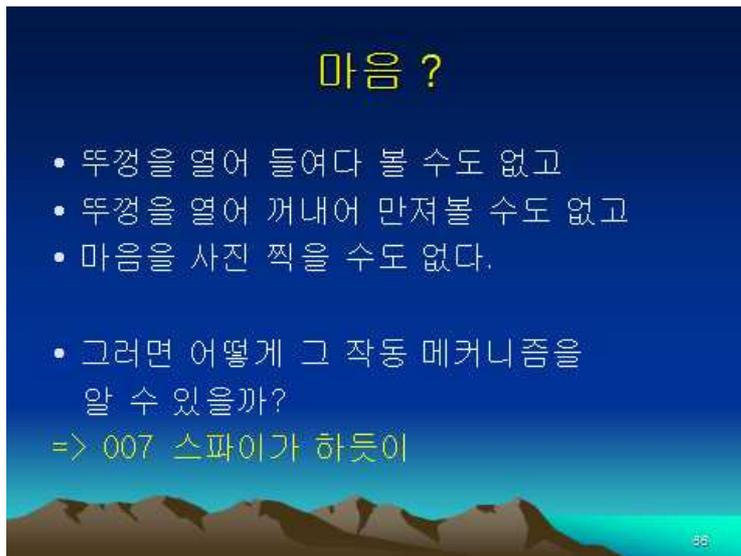
1-2강 file no.64

과학에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과학 분야의 과학자끼리 일정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과 연구에 일치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통일된 관점의 집합적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틀을(그 시대의 대표적 보는 틀을) 마음의 탐구에 적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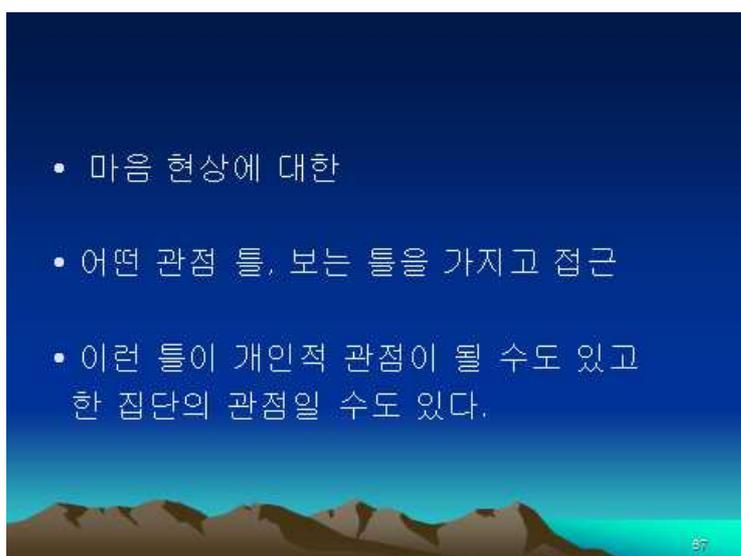
마음에 대하여 과학적 탐구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신이 개입하거나 동물영기(animal spirit)가 사람 몸 속을 돌아다니며 작동하여 마음의 작동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음이 신의 개입에 의해 작동되거나,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한 자기중심적 생각에 의해 움직이기에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과학이 형성된 이후 초기에도 인간의 마음은 신적인 특성이 개입된다고 보아, 비록 다른 자연대상은 과학적으로 연구 가능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 오랫동안 전하여져 내려 왔었습니다.



1-2강 file no.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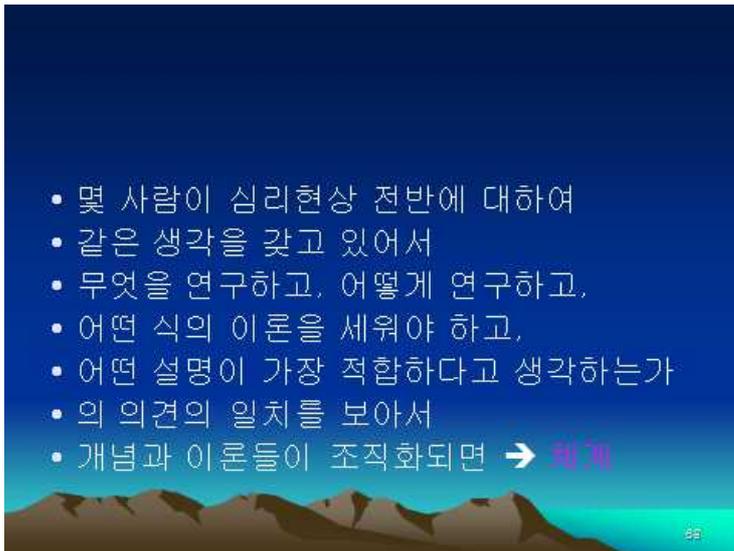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뚜껑을 열어 볼 수도 없고 뚜껑을 열어 꺼내서 만져 볼 수도 없고 사진 찍을 수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과학적으로 접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심리현상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어떤 패러다임적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2강 file no.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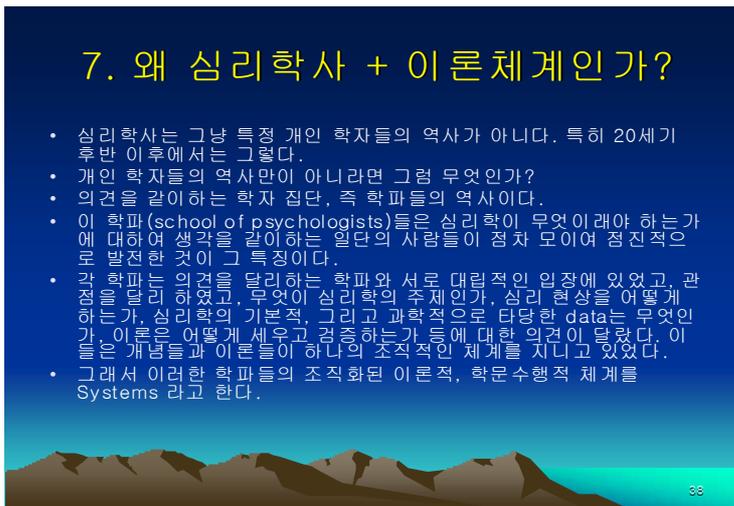
이런 관점, 보는 틀이 개인적 관점일 수도 있고, 한 무리의 학자들의 집단적 관점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파 또는 이론적 체계가 출발합니다.



1-2강 file no.68

한 무리의 학자들이 심리현상 전반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무엇을 연구하고 어떻게 연구하고 어떤 식의 이론을 세워야 하고 어떤 설명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에 의견의 일치를 보아서 그 것과 관련된 개념과 이론 틀이 조직화되는 그 것이 바로 심리학 체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강 file no.69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왜 심리학사 + 이론 체계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는데, 심리학사는 그냥 특정 개인 학자들의 역사가 아니고 의견을 같이하는 학자 무리, 집단, 즉 학파들의 역사입니다. 이 학파들은 심리학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점차 모여서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학파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되는 것이 그 특징인

데, 각 학파는 심리현상에 대해 의견이 다른 학파의 학자들 입장과 서로 대립적인 입장에서 관점이 달랐습니다. 무엇이 심리학의 주제인가? 심리현상을 어떻게 보는가? 심리학의 기본적인 그리고 과학적으로 타당한 데이터는 무엇인가? 이론은 어떻게 세우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 검증하는가? 등에 대한 의견이 달랐습니다.

한 학파는 심리현상에 대한 개념들과 이론들이 하나의 조직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학파에 따라서 그 이론적, 개념적 체계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 조직화된 개념적, 이론적 체계를 말하자면 이론체계(systems)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론체계의 정의를 영문으로 설명하자면 다음 슬라이드의 내용과 같습니다.

## 심리학의 '체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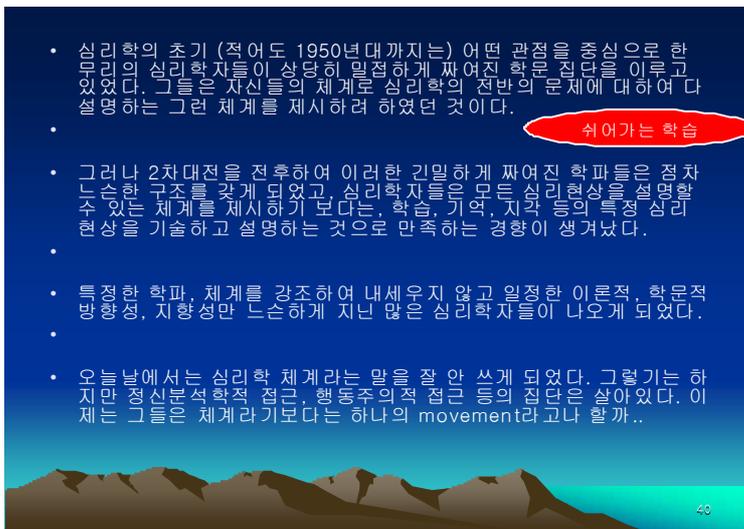
- => "By the term psychological system is implied a coherent and inclusive, yet flexible, organiz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facts and special theories of the subject. (p.2)
- 
- 체계란 심리적 사건들에 대한 생각과 관찰을 질서있고 의미있는 형태로 정리, 배열하게 해주는 그러한 틀 또는 받침대. "a framework or scaffolding which permits the scientist to arrange his data in an orderly and meaningful way"

• 1. McGeoch, J. A. (1933). The formal criteria of a systematic psychology. *Psychological Review*, 40, 1-11.  
 • 2. Lichtenstein, P. E. (1967). Psychological systems: Their nature and function. *Psychological Record*, 17, 221-240.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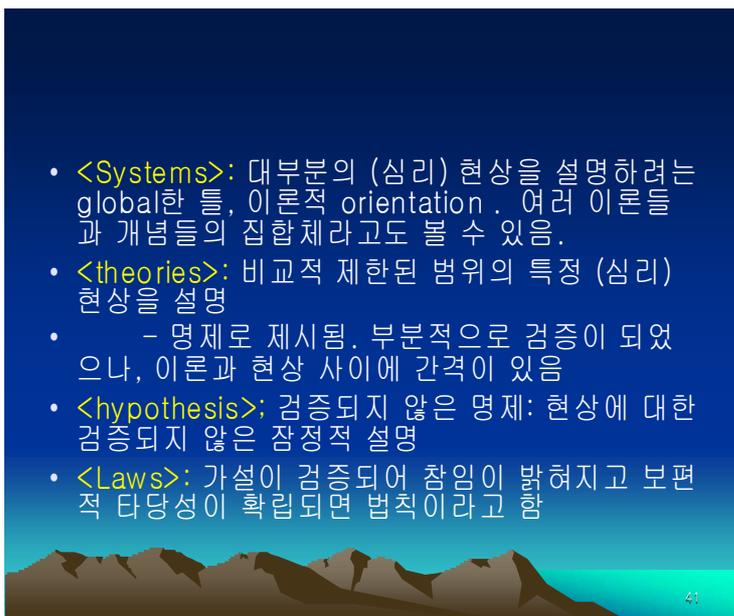
1-2강 file no.70

이 슬라이드에서 심리학의 체계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체계란 심리적 사건들에 대한 생각과 관찰을 질서있고 의미있는 형태로 정리, 배열하게 해주는 그러한 틀 또는 받침대. ("a framework or scaffolding which permits the scientist to arrange his data in an orderly and meaningful way")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기타 내용은 각자 한번 보시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 file no.71

그 다음 슬라이드의 끝에 보면 오늘날에는 심리학 체계라는 말을 잘 안 쓰게 되었는데 둘째 단락에서 이야기 한 바처럼 각 학파들이 점차 느슨하게 구조를 지니게 되면서부터 체계라는 말을 잘 안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오늘날에도 정신분석학적 접근, 행동주의적 접근 등의 집단은 살아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집단, 학파들을 요즘은 체계라고 부르지 않고 그 대신 movement, 움직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1-2장 file no.72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systems가 무엇인가가 systems, theories, hypothesis, laws 이것들을 비교하여 규정되며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자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대표적인 심리학 체계>

- 1. 연합주의 : associationism)
- 2. 구조 (구성) 주의: structuralism
- 3. 기능주의 : functionalism
- 4. 정신분석학 : psychoanalysis
- 5. 행동주의: behaviorism
- 6. 형태주의: Gestaltism
- 7. 인지주의: cognitivism
- 8. 인본주의: humanistic psychology

1-2강 file no.73

그 다음 슬라이드에, 대표적인 심리학 체계로 연합주의, 구조주의, 기능주의, 정신분석학, 행동주의, 형태주의, 인지주의, 인본주의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심리학사에서 심리학의 주요 흐름으로, 보는 틀로, 이론체계로 다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심리학 이론과 체계의 역할>

- 1. 체계는 심리학의 여러 영역의 현상들에 대하여 자료와 이론적 원리들을 의미있는 형태로 조직화 할 수 있게 한다. (마구잡이로 흩어져 있고 조직화 안 된 자료, 이론들은 한 학문을 구성하지 못한다)
- 2. 체계가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체계는 자료와 이론 사이의 간격에 대하여 체계의 틀 안에서 그에 대한 설명,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예: 정신분석학)
- 3. 한 체계나 이론은 새로운 결과를 발견 가능하게 해준다.
- 4. 체계가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에 한계가 있다.

1-2강 file no.74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심리학 이론과 체계]가 지니는 역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체계는 심리학의 여러 영역의 현상들에 대하여 자료와 이론적 원리들을 의미있는 형태로 조직화 할 수 있게 합니다(마구잡이로 흩어져 있고 조직화 안 된 자료, 이론들은 한 학문을 구성하지 못합니다).

둘째로 체계가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체계는 자료와 이론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간격에 대하여 체계의 틀 안에서 그에 대한 설명,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 정신분석학).

셋째로, 한 체계나 이론은 새로운 결과를 발견 가능하게 해줍니다.

넷째로. 그러나 한 학파의 이론체계가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론체계에는, 는 어떤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8. 심리학의 기본 물음들과 논쟁점

- 1.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 2. 심신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 3. 생득론 대 경험론: 인간 본성 (nativism vs. empiricism)
- 4. 자유의지와 결정론
- 5. 인간 행동과 사고의 합리성

44

1-2강 file no.75

그 다음에 심리학의 이론체계를 논하자면 자연히 심리학의 기본 물음과 논쟁점들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이후에 각 시대의 심리학 전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다루어질 테니까 웃헌은 각자 두 슬라이드에서 제시되는 심리학의 물음들과 논쟁점들을 살펴보고

- 6.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
  - 진화론적 관점의 타당성
- 7. 인간지식의 원천:
  - 자연의 반영? 주관적 구성?
- 8. 인간의 마음은 기계인가?
  - 기계론의 타당성, 적용 방식
- 9. 경험적 객관적 과학방법과 주관적 현상학적 방법의 타당성

45

**<심리학의 기본 issues>**

쉬어가는 학습

- 1. 심신 문제
- 2. 주관성과 객관성의 문제
- 3.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qualification)의 문제
- 4. 환원론과 비환원론
- 5. 미시 대 거시적 접근 (molecular vs. molar): 나무와 숲의 관점 문제
- 6. 목적론과 결정론; 결정론과 자유의지
- 7. 순수이론과 응용적 실제
- 8. 생득론(본유론)과 경험론 : 유전과 환경
- 9. 이론 대 자료: 설명 대 기술

46

1-2강 file no.77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심리학의 기본 논쟁(물음) 이슈들도 각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9. 종합: 과학, 심리학, 이론체계**

- 과학은 자연 현상의 설명이 목적
  - 과학적 방법을 사용, 과학적 인과적 설명
  - 과학적 보는틀/ 패러다임
- 심리학은 마음/행동 현상의 설명이 목적
  - 과학적 방법 사용/ 심리학적 보는틀 적용
  - 중심 주제와 논쟁점의 계속적 논의
  - 주제/ 논쟁점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의 타당성, 체계성, 설명의 적절성이 계속 논의됨
  - 이는 심리학의 이론체계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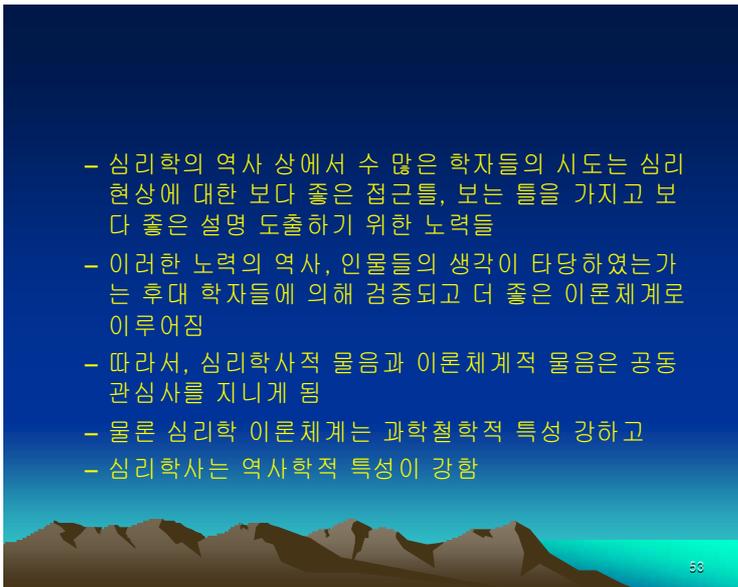
52

1-2강 file no.83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입니다. 종합 과학 심리학 이론 체계라고 돼있는 슬라이드를 보시면 과학은 자연 현상의 설명에 그 목적이 있는데,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과학적 인과적 설명을 하고 과학적 보는 틀, 패러다임을 적용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학으로 출발하는 심리학은 심리( 및 행동)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냥 상식적으로 설명하는 것 아니라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심리학적 보는 틀을 적용해서, 중심 주제와 논쟁점을 계속 접근해야하고 이것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의 타당성, 체계성, 설명의 적

절성을 계속 논의해야하고 이것이 심리학 이론체계의 중심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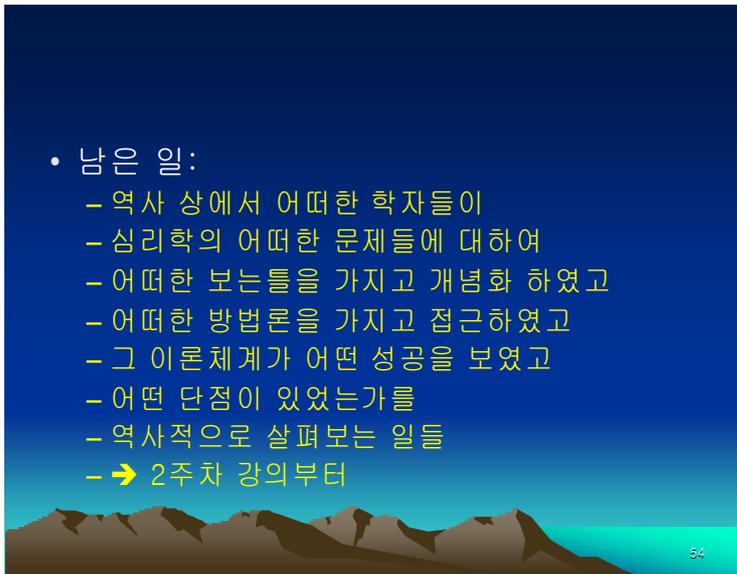


1-2강 file no.84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심리학의 역사상에서 수많은 학자들의 시도는 심리현상에 대한 보다 좋은 접근 틀, 보는 틀을 가지고 보다 좋은 설명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노력의 역사가, 이런 인물들의 생각이 타당하였는가 하는 것은 후대 학자들에 의해서 검증되고 더 좋은 이론 체계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심리학사적 물음과 이론 체계적 물음은 따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공동 관심사를 갖게 되고 함께 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심리학 이론 체계는 과학 철학적 특성이 강하고 심리학사는 역사적 특성이 강하다는 차이점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과 과학적 설명, 과학적 보는 틀 그리고 심리학에서 그 것의 적용을 상당히 추상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번 주 강의의 마지막 슬라이드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1-2장 file no.85

우리에게 이제 남은 과제는, 역사상에서 어떤 학자들이 심리학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보는 틀을 가지고 개념화 했고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접근을 하였고 그 이론 체계가 어떤 성공을 보였고 어떤 단점이 있는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시대별로 중요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일이 되겠고 이것이 2주차부터의 본격적인 심리학사의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첫 주의 강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주차 1회 차에서는 왜 심리학사를 공부해야하는가를 공부했고 1주 2회 차 조금 전까지는 과학과 심리학, 과학적 보는 틀과 심리학, 과학적 방법과 심리학 그 다음에 그 것과 이론체계의 개념과 연결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추상적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역사상에서 특정 시대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자들이 어떻게 심리현상을 생각했고 그 결과로 심리학의 이론들이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의 문제는 중간 중간에 다시 조금씩 언급하면서 마지막 주에 가서 다시 한번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1주 2회 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1주에서는 '심리학사를 왜 공부해야 되느냐'와 '과학과 심리학사와의 연결이 무엇이나' 라는 주제를 개괄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2년 3월 29일 수정 판본 -